

## 오차노미즈대학교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서연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시간의 빠름을 새삼스럽게 체감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에서의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탈출 겸 해외에서 대학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갑자기 결정한 유학이지만 목표로 했던 것도 이뤘고 바쁜 생활에서 탈출해서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처음으로 지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적인 성격은 아닌지라 생활 반경은 해피로드까지 거의 기숙사 안에서만 있었지만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었던 시절처럼 다른 유학생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현재 IT 공학을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노미즈대학교에서는 정보과학과 전공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이론 위주의 수업을 들었지만 한국에서 배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수업이어서 좋았고 일본 학생들과 프로젝트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께서 졸업생, 대학원생 발표회에 초대해주셔서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에 관한 발표를 듣게 되어 졸업 프로젝트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유학생 전용 수업은 별로 듣지 않아서 일본어를 쓸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한 학기 유학은 일본어 실력을 늘리기엔 짧은 기간이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일본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보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일본어를 배우고 현재는 쓰지도 공부하지도 않아서 많이 까먹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점이 아니었다면 유학생 전용 수업을 더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싶었습니다.

유학 생활에서 딱히 곤란했던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혼자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라 매일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식사 문제만 빼면 전반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재미있는 생활을 했기에 유학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에 대한 느낌도 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